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 전남매일

www.jndn.com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제9089호 (음력 2월 8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주) 백양실업
TEL . 061) 392-7900

# '군공항 받고 광주 편입' 이해관계 맞았나

이슈 광주시-함평군 군공항 이전 주력 왜

## 이달만 세번째 주민 설명회 개최
## 현안해결 시너지 '광주편입' 확산
## 복잡한 절차·공감대 등 난제 산적
## 무산시 "전남 이전 어렵다" 신중론도

광주시와 함평군이 군공항 이전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추진 배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세 차례나 열리는 등 함평군이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전, 빛그린산단,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등 광주시와 함평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9일 오후 2시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함평군이 지역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와 국방부에 설명회를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함평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3월에만 세번째다.

이 자리에서 일부 사회단체는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고있다. 함평군번영회와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대구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사례를 들며 함평의 광주 편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 지원은 물론 편입을 통해 지역개발, 투자 활성화 효과를 꾀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오민수 함평 군공항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군위군와 의성군을 방문했는데 대구시에 편입이 확정된 군위지역은 벌써부터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군위군의 땅값은 몇달새 5~6배가 오르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만 들어서는 의성군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10년 넘게 걸리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소멸 극복, 빛그린산단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함평의 광주 편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평군 편입을 통해 광주시 역시 최대 과제인 군공항을 비롯, 금호타이어 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바다를 품은 함평을 끌어안으면서 해양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등 서로에게 '윈윈' 전략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함평군이 오는 6월 중 군공항 유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군공항 이전 작업과 맞물려 함평의 광주편입 요구도 추진 동력을 얻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 복잡한 절차는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함평군의 광주편입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 연구용역, 시도의회 동의, 행정안전부 관할구역 변경 건의, 검토 및 법률안 작성(행안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행안부),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공포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추진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꼬박 3년이 걸렸다.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더라도 각종 국·공유재산 인수, 세입·세출 예산 조정, 전산 시스템 통합 정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유·초·중·고교 편입 등 향후 절차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에 광주 군공항 함평 이전이 확정될 경우 민간공항 이전 갈등 재연도 불가피하다. 지난 민선 7기 막판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협약파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봤을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함평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28일 오후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장, 5개 구청장, 강은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시-구 협업을 통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

### 내달 1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 강 시장 "시민 곁에서 신속하게"

광주시가 내달 1일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8일 오후 시청 잔디광장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시민들에게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체계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행정과 민간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해 강은미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담팀(TF) 위원, 민간 수행기관 돌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청년 크로스오버 밴드 '비담'의 공연을 시작으로, 추진경과 보고, 시-구 업무협약,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하나하나 완성하자는 의미를 담은 퍼즐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내달 1일 서비스 개시를 위해 5개 자치구, 시의회와 함께 전담조직 및 예산을 확보했다. 또 운영지침 마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돌봄콜(1660-2642) 개통, 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민간 제공인력 사전교육, 13개 협력기관(단체)과 업무협약 등 준비를 마쳤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며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며 돌보는 것인 만큼 돌봄의 책임을 개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자 우리 부모의 삶, 가족의 삶, 미래 나의 삶을 지키는 일인 만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작이다"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작을 응원했다.

/길용현 기자

## 광주시, 안전성 논란 지산IC 특정감사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제2순환도로 지산IC 도로개설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13일 열린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차량진출 실패율 최대 8배, 사고발생률 최대 14배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른 것이다. 지산IC 실시설계 변경 및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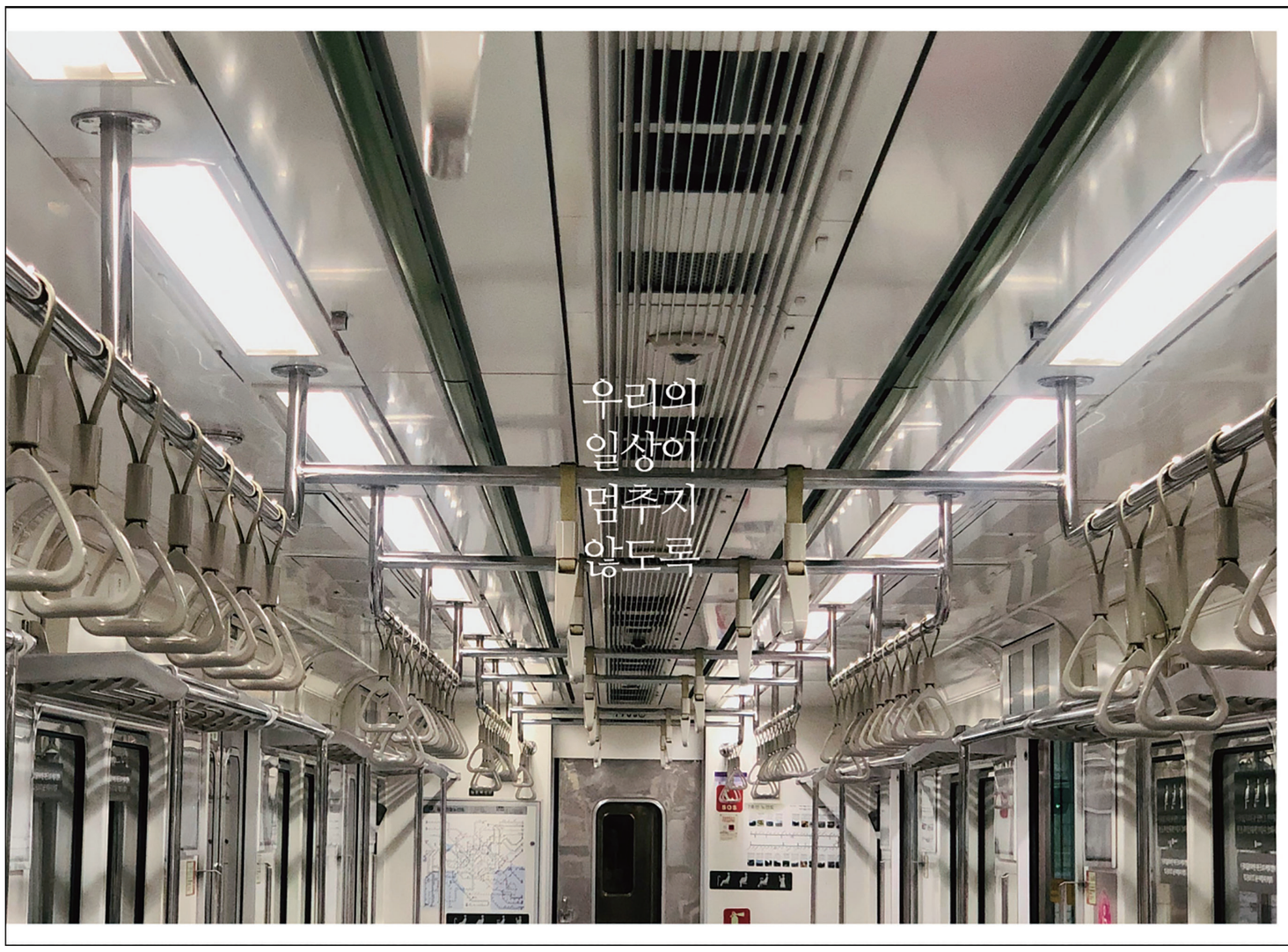
지산 IC는 양방향 총 길이 0.67㎞, 폭 6.5m로,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당초 오른쪽 진출방식을 적용했지만 소음·분진·사생활 보호 등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주민, 전문가,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안전 문제로 개통이 최종 백지화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원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데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길용현 기자

INSIDE NEWS

화정 아이파크 해체 심의 통과 ▶6면
광주 벚꽃 명소 상춘객들 아쉬움 ▶7면
김종국 KIA감독 출사표 ▶14면




오늘.
소중한
전기
로부터
시작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